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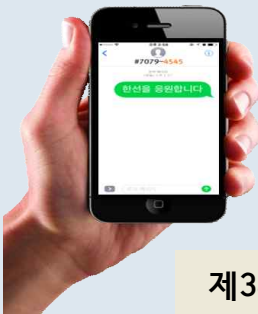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북한의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해야 하나

[발제자]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

[일 시] 2021년 4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6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을 활용하여 적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북한은 이미 100여 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보수 지향 언론 이외에는 언론, 지식인, 국민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 한국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대전에 있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 핵무장을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른 국가가 반대할 경우 시설 구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축을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최소한 4~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핵무기 생산에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전망도 있으나 경제제재와 국제적 압박 상황이 되면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과 한국 간 1:1 핵공유는 실현하기 어렵다. 냉전시대처럼 한국이나 일본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도 국민 정서상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미국 핵무기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전제하되, 그 배치 방법을 땅이나 바다, 배나 잠수함, 비행기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용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북한의 핵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야욕

- ◆ 북한이 제8차 당대회 결정에서 발표한 노동당 규약 개정을 보면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노동신문은 이를 “강위력(强偉力)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이라고 했다. 게다가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핵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계획의 시작이다. 며칠 전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은 1년에 12-18개의 핵무기를 만들어 이미 100여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7년이 되면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보수 지향 언론 이외의 언론과 지식인, 국민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다.
- ◆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맥매스터는 그가 쓴 책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핵무기를 가지면 결국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로 ‘적화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을 축출할 것이라며 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글로 ‘적화통일’을 표기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방법은 핵무기를 갖든지 아니면 미국의 핵무기를 가져다 놓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없다. 전쟁을 유발한 국가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핵무장

- ◆ 한국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대전에 있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 핵물질

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 핵무장을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다른 국가의 반대이다. 반대할 경우 설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시설 구축을 하는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최소한 4~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핵무기 생산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전망도 있으나 경제제재와 국제적 압박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 ◆ 극단적 상황에서 NPT(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방지조약) 탈퇴는 허용된다. 다만 탈퇴를 통보할 경우 국제사회는 그 국가의 주장처럼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고 다양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따라서 NPT를 탈퇴한다고 핵무기 개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 핵무장을 할 경우에도 소요시간 설정이 필요하다. 브레이크아웃 타임(Breakout Time)은 핵무기 한 개의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이다. 현재의 핵무장 소요시간을 평가한 후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식별하고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파악해 이들 간의 접촉 및 정보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 핵공유

- ◆ 핵공유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 신원식 의원이 2017년 경부터 핵공유를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전략사령부 실무장교들이 NATO 핵공유체제의 동북아시아 도입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 3월에는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과 미 동맹국 정치인들이 미국, 일본, 한국, 호주의 핵계획단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핵공유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간 1:1 핵공유는 실현이 곤란하다. 냉전시대처럼 한국이나 일본에 미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한·일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미 핵무기를 동북아시아에 배치하는 것을 전제하되 땅이나 바다, 배나 잠수함, 비행기 등 다양한 배치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 ◆ 핵공유는 한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을 전제하면서 순차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잠수함을 한국·미국·일본이 공유하고 그 운영비용을 함께 지불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각각 작전 수행, 훈련, 정비, 긴급 상황대비에 투입하기 위해 핵잠수함 4척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소 한 척의 핵잠수함이 동해에 상시 전개하면 된다. 동해의 핵잠수함이 효과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괌에 핵무기를 배치한 후 미국의 폭격기가 대기한다. 이것이 북한에 효과가 없

다면 한미일 폭격기를 배치한다. 그 다음 단계는 일본에 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이며, 가장 마지막 단계는 일본에 전술적, 작전적 수준의 핵무기를 두고 한국에는 전술적 수준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다.

- ◆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과의 거리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의 거리가 짧으므로 핵무기를 배치하더라도 선제공격을 당하면 대응할 핵무기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 사드를 성주같은 남쪽에 배치한 이유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작전기지가 보호되어야 반격이 가능하므로 조금이라도 보호 가능한 일본에 배치하려는 것이다. 일본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일 양국 협력은 핵무장뿐만 아니라 북핵 대응에 필수적이다.
- ◆ 핵공유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적극적인 비용분담의지가 중요하다. 핵공유를 위한 비용이 크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개발 비용보다는 적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다. 강력한 의지의 시현으로 균형외교를 탈피하여 북한을 비핵화 하도록 중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반전, 반핵 여론도 여론 주도층과 언론의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순화해나가야 한다.
- ◆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을 사용한 적화통일을 추진하고 있음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이다. 핵공유 외에는 북핵 대응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생존하려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